



뛰어난 심미안으로 쓴 대표적 문화사

경제적 요인 배제한 정태적 해석

김영한 | 서강대 사학과 교수

부르크하르트 지음/안인희 옮김
푸른숲/A5/면/29,000원

철학자 툴민(Stephen Toulmin)은 근대의 출발을 두 단계로 나눠 이해했다. 1단계는 인문주의가 발전한 르네

상스 시기이고, 2단계는 합리주의가 대두한 17세기 전반기다. 인문주의 전통과 합리주의 전통은 우리 시대에 다 같이 필요한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7세기 이래의 근대세계를 지배해온 것은 합리주의였다. 그러므로 툴민은 이와 같은 합리주의의 일방적 지배가 현대사회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회복을 주장했다. 이처럼 오늘날 '르네상스(시대)의 르네상스(부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부르크하르트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번역, 출간된 것은 비록 때늦은 감은 있어도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물론 이 책이 국내 최초의 번역은 아니다. 이미 1975년에 을유문화사가 《이탈리아 문예부흥사》를 출간했다. 그러나 이 책은 번역을 맡았던 정운룡 교수가 작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타계하는 바람에 부득이 출판사 편집부가 일어 번역본에 의존해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새로 나온 책은 독일어 원본을 직접 번역했다는 점에서 우선 큰 의의를 지닌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는 문화사 서술의 대표적 작품이다. 문화사는 한마디로 정치사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사건 중심의 서술을 지양하고 주제 중심의 서술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부르크하르트는 역사의 전개과정을 인과관계에 의해 체계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특정한 시대를 선정해 그 시대의 사회상을 마치 한폭의 그림에 담듯이 종합적으로 묘사하고자 한다. 역사를 통시적 관점이 아닌 공시적 관점에서 보고자 하기 때문에 그는 역사의 생성과 변화, 진

보와 발전에 무관심하다. 그가 찾고자 한 것은 역사의 정지된 상태에서 드러나는 '반복되는 것', '항상(恒常)적인 것', '유형적인 것'이었다.

이 책은 또한 '전통적 르네상스관'의 확립에 기초가 됐다. 전통적 르네상스관이란 르네상스가 중세와 단절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근대세계의 출발이 되고 있다는 견해를 일컫는다. 부르크하르트는 '예술품으로서의 국가', '세계와 인간의 발견', '현세성과 부도덕성' 등은 르네상스의 근대성을 단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이와 같은 근대적 특징들은 한마디로 개인주의의 발로로서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의 독특한 정치풍토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 당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무자비한 참주정치와 끊임없는 당파싸움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과 풍토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원리와 인간상이 출현했다. 국가는 봉건적 관습과 윤리적 규범을 무시하고 의도된 목적과 합리적 계산에 의해 운영됐으며 사람들도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개성적 인간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 전반에 깔려 있는 기본 주제는, 따지고 보면 개인주의와 근대성이라는 두 개념으로 압축된다.

부르크하르트의 역사서술과 연구방법은 독창적이지만 그의 역사적 해석은 지나치게 정태적(情態的)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상류층에 너무 한정된 서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경제생활의 대부분을 배제했으며 경제적 요인과 영향을 과소평가했다. 그러나 이 책만큼 직관적 통찰력과 뛰어난 심미안으로 역사를 성찰하고 문화를 관조한 책은 아직까지 그 예가 흔치 않다.●